

‘전제와 한국어 의미론 교육’에 대한 토론문

이유미(중앙대)

본 논문은 한국어 의미론 교육을 위해 ‘전제’를 기술한 개론서 중심으로 의미론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미론 개론서를 분석하고 구성과 예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본고의 논의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토론자가 발표자의 ‘전제’에 대한 스키마와 일치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참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추정적 가능성만을 가진다는 점에서) 토론자가 발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면 양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발표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의미론 교육에서 전제에 대한 예의 해석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점은 매우 공감합니다. 그러나 본고에서 제시하고 해석한 아래의 몇 가지 해석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②-2. 심재기 외(1984), 윤평현(2020): 이들의 ‘의미론적 전제’는 전제 1의 개념이고, ‘화용론적 전제’는 전제 3과 4를 포괄함. 그런데 화용론적 전제의 예로 든 것은 모두 전제 3에 해당하고 전제 4에 해당하는 것은 들지 않거나, 든 예가 부적절해 보임.

예) “*너 진지 안 먹었구나.”에서는 “너 먹었구나”의 화계가 요구하는 화용론적 전제와 ‘진지’라는 높임말이 가지는 화용론적 전제가 모순을 일으킨다(심재기 외 1984).

예)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음으로써 한국 영화의 위상을 크게 높였지요.”는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았다는 공통 지식을 화자와 청자가 공유할 때 가능한 발화이다(윤평현 2020: 331).

⇒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즉, 화자의 생각에 청자가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이 발화가 적절한가?)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장/발화의 어떠한 요소나 특성이 그러한 화용론적 전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인지에 대한 기술도 필요함. (p3)

이 부분에서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음으로써 한국 영화의 위상을 크게 높였지요.”가 아마도 불가하다고 발표자가 생각한 것은 이 문장의 중심 의미가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인 것’에 있기 때문이다. “‘아카데미상’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영화 시상식이다”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이 청자와의 대화 상황에서 동의를 구하기 위한 장면이었다면, 위상을 높인 것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면, 윤평현(2020)의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론자 역시 맥락이 주어지지 않은 문장이라는 점에서 발표자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2.

가. 그는 그녀가 옆에 있음을 생각했다. → 그녀가 옆에 있다. (p9)

여기에서 발표자는 ‘생각하다’가 비사실성 동사로 언급한 것을 반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위와 같은 예문을 들었습니다. ‘생각하다’가 가진 객관적 진위구분의 불가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위의 문장은 사

실적으로 그녀가 옆에 있는 존재성을 기반한 ‘그’의 생각인지, 아니면 혼자의 환상인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생각하다’의 사실성 확인 불가의 성격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전제 유발 표현을 설명할 때는 모든 개론서들에서 의미론적 전제, 즉 전제 1과 관련된 표현만을 제시하였고 화용론적 전제(전제 2~4)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언어 형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보았듯이 화용론적 전제를 아예 다루지 않은 논의들도 있지만, 그 개념을 소개하였더라도 관련된 언어 표현은 따로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화용론적 전제의 성격이 그러하다고 본 것일 수도 있고(즉, 직접적으로 어떤 언어 형식과 긴밀히 관련되지 않는다고 본 것), 두 가지 전제의 개념을 실질적으로는 구별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윤평현(2000), 심재기 외(1984), 박종갑(1996)이 전자의 입장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화용론적 전제가 나타나는 언어 현상의 예로 화행의 예비조건을 들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화청자의 공통 기반으로서의 전제 4를 중심으로 화용론적 전제를 이해한다면, 보다 풍부한 언어 표현들의 목록이 함께 다루어질 수 있다. (p5)

이 부분은 화용론적 전제를 의미론적 전제처럼 형식적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화용론적 전제를 의미론적 전제처럼 언어표현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맥락의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합니다. 화행의 적정조건도 이 관점에서 매우 한정적 예시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제 4의 경우를 중심으로 화용적 전제를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나, 본고에서 3장의 관점에서 표현 목록을 중심으로 설명하기에는 과연 적합할 것인가에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화용론이 가진 실발화 설명의 유용성은 사실상 언어적 분석의 난제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면으로 소통하는 것은 상호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에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발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논의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의미·화용 학습자를 위한 의미있는 논의를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